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례와 실태

손영수*, 황선호*, 안다미* 변지연*, 김종성*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 학부
 e-mail:*neche123@naver.com

Study on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Young-Su Son*, Seon-Ho Hwang*, Da-Mi Ahn*, Ji-Yun Byun*
 , Jong-Sung Kim*
 *Division of e-business, Kyungnam University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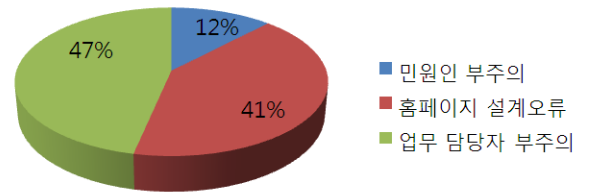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인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등 유출된 기관도 다양하다. 그에 따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며 담당 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서론

최근 국내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 같은 금융기관 데이터베이스 해킹은 물론, 네이트와 같은 SNS 사이트 고객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그 규모적인 면에서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유출되어진 개인정보들은 제 3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출되어지는 기관 및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사고들을 나열하자면 금년 9월에 있었던 하나 SK카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거 삼성카드, 하나로 텔레콤, SK 마케팅 & 컴퍼니의 회원 로그기록 인터넷 노출이 있으며 그 외에도 GS칼텍스, 옥션 등 국내 대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민들 개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사업비용은 방통위 예산 총액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 예산대비 비율 - 08년 1.1%, 09년 0.64, 10년 0.48, 11년 0.3%)

201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 총 1,196건



(그림1)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비율

2.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실태

<표1>개인정보보호 사업 사업비 추이[1]

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 사업 최근 5년간 사업비 추이

(단위: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안)
예산	5,197	3,814	2,940	2,760	2,760
전체예산 대비비율	1.1%	0.64%	0.48%	0.3%	-

방통위 예산 총액 변동 추이

(단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방통위 예산 (일반회계, 기금)	468,575	588,468	607,652	865,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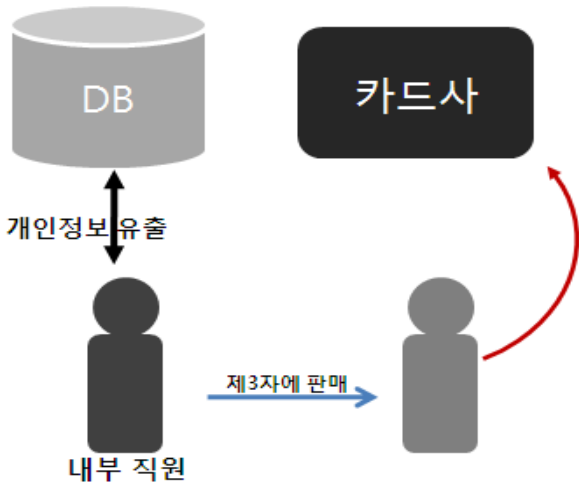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사업 사업비 추이(자료=이용경 의원)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홍보, 민간부분 보안서비스 보급 확대, 기업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업무 담당자가 게시한 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휴면사이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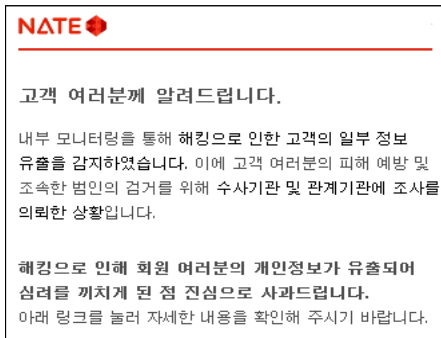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위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비율처럼 대부분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살펴보자면, 현대 캐피탈은 퇴직한 담당직원의 메일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D/PW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 직원의 ID/PW를 통해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총 7회에 걸쳐 무단 접속이 이루어졌으며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

드의 경우,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제 3자가 개인정보로 해당 카드사를 협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모방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림2)하나SK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국내 3대 포털인 NATE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제3의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네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카드가 재 발급되는 등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3)네이트 개인정보 유출[2]

SK컴즈는 2010년 사업보고서에 전체 443억원 중 약 9%인 40억원을 보안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안에 쓰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보안에 관한 위험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2>SK컴즈 금융감독원 제출자료[3]

구분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비율	실제 자금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비율
서버	12,000	27%	18,575	42%
보안	4,000	9%	0	0%
마케팅	3,000	7%	16,999	38%

출처 : 금융감독원 2010년 사업보고서 중 공모자금 사용내역 (일부)

3. 결론

현재의 대처방법으로는 기업의 각 부서마다 보안 감시팀을 배치하거나,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보안 교육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문서파일 암호화, USB와

같은 이동식 매체 사용 금지방안, 보안파트 신설 등 보안에 관련된 투자 확대를 통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IT보안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피해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보안을 지켜야 할 내부직원의 소행이 많았다는 것이며, 이런 내부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SK컴즈 네이트의 3500만건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인력 및 시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며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가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 [1]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10821175814
- [2]www.nate.com (네이트 홈페이지)
- [3]<http://www.bai.go.kr> (감사원 홈페이지)
- [4]SK컴즈 2010 사업보고서 중 공모자금 사용내역
- [5]<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6]이기혁, 윤재동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측정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제18권 제3호
- [7]유정각, 송주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4호